

미래세대를 위한 충남형 인성학습원 조성 방안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keep@kongju.ac.kr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충남형 인성학습원 조성 방안 모델로 자연체험, 자연학습, 자연놀이, 자연가꿈을 통합한 '자연놀이뜰'을 제안함.

CONTENTS

1.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2. 충남형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조성 방안
3. 어린이 인성학습원 추진 방향과 전략
4. 정책 제언

요약

- ◀ 충남의 미래는 충남의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는가에 의해 크게 좌우됨.
-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장벽들의 극복, 잠재성의 발견과 이해, 그리고 그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함
- ◀ 아이들은 건강하고 다양한 자연에서 친구들과 함께 체험하고, 즐기고, 배우고, 다른 생명을 돌보며 성장함.
- ◀ 최근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포함,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및 체험 공간 조성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 자연체험, 자연학습, 자연놀이, 자연가꿈을 통합한 '자연놀이뜰' 모델을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의 미래로 제시함
- ◀ 자연-보육-배움-공동체'를 묶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좋은 삶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통합적인 구현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 운영 체계의 모델을 제시함
- ◀ 제안된 모델의 실현을 위해 충남의 새로운 중심인 내포 신도시에 첫 번째 대상지를 선정, 공간 구성안과 운영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수시로 방문할 수 있도록 충남의 5개 자연놀이뜰 조성에 대한 네트워크 체계도 제안함.

01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

1.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

-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아이들 속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아이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조건을 고려할 때 인성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자연체험교육의 세 영역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됨
- 어린이 인성교육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공적 책무성 강화와 단순한 기본생활습관 지도나 규범적 인성교육을 넘어선 지역사회 연계활동과 바깥놀이 확대가 요구됨
 - 어린이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사회 전반적인 참여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사회 모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활동 추진이 요구됨
- 어린이 지속가능발전교육
 -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의 요구와 필요는 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좋은 삶을 위한 조건을 제공해야 하고, 그런 요구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함
 - 어린이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친구들과 함께 힘을 모아 여러 가지 대안 중 최선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천할 수 있으므로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과정에는 아이들이 사람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람을 차별 하지 않으며 스스로 위축되지 않는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인권이 늘 고려되어야 함
 -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스토리텔링 등으로 흥미롭게 연결지를 필요가 있고, 그 체험은 문화 예술 활동과 결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 어린이 자연체험교육 및 생태교육

-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극히 적은 야외 활동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반면 많은 시간을 실내에서 컴퓨터, 게임 등을 하면서 보내고 있음
- 자연체험은 어린이의 신체적, 인지적, 감성적 발달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며, 발달 단계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과 체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자연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가 다양하여 아이들이 다양성, 배려, 변화, 상호의존적 관계 등을 배울 수 있게 해줌. 따라서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공간을 조성할 때는 가급적 자연적인 변화가 많고 구성요소가 다양하도록 해야 함
- 어린이들의 자연체험은 친구,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하고 그 결과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산출물로 만들어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표현, 창작 활동과 연계, 결합될 필요가 있음

2.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 및 교육 정책 동향

- 관련법과 정책동향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충청남도 영아 및 어린이 보육조례: 이 조례에서는 ①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②인성학습원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제4장에서 다루고 있는 인성학습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교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를 갖춘 사업으로 평가되며 본 조항에 따라 2006년 공주시에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
- 충청남도 보육발전 5개년 계획(2016-2020): 충남은 2020년까지 보육 정책의 목표를 '아이의 행복, 부모는 안심, 교사는 보람 있는 충남보육'으로 설정하였으며 정책방향은 공공성의 확대와 양질의 안심보육 환경 조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 충청남도 보육 및 어린이교육 현황

- 영아 및 보육 어린이 수: 충청남도 영아 및 보육 어린이 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4년 전국과 충남이 공통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충남 북부지역의 영아 및 보육 어린이 수가 증가했음 (충청남도, 2016).

- 전국 및 충남 어린이집 현황: 2014년도 충청남도 어린이집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이렇게 7개 유형 2,053개소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가정이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충청남도 종합계획(2012-2020) 지역주민 의식 조사: 충남 발전수준에서 교육 부분이 7위를 기록해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발전 장애요인에 대한 설문에서 지역불균등 심화(24.2%), 교육서비스-인력개발 수준 미흡(18%)이라는 응답이 있어 충남 발전을 위한 교육수준 제고 필요
-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2015년 내포신도시 상주인구 1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내포신도시 8대 특성화 개발계획 중 '교육특화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오용준 외, 2016).

● 관련 시설 현황

-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충남에 특화된 기관으로 전액 도비로 운영 중이며, 2015년 3억3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약 180개 기관 7300명의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하였음
- 충청남도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03년에 설치되었고, 2015년 약 3억 원의 센터 운영비를 국비 50%, 도비50%로 지원 받아 운영 중이며 현재는 건양대학교에 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음
- 충청남도어린이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2011년 6월 20일 홍성군 흥북면에 설치 되었음.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약 96억 원의 설치비가 소요되었고 연간 약 2만8천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운영비 7억9천7백만 원이 소요되었음

3. 국내외 사례

● 국내 사례

- 서울시의 상상어린이 공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5개 자치구에 304개소 어린이공원 조성을 목표로 실시한 사업. 테마와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는 놀이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운동시설, 쉼터, 어린이전용모래놀이터, 화단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1,472억 원(서울시 1001억, 자치구 471억)의 예산을 투입하였음
- 순천 기적의 놀이터: '스스로 몸을 돌보며 마음껏 뛰어놀자'를 모토로 아이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고 스스로 통제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건강한 위험(healthy risk)'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놀이와 자기 돌봄 경험의 필요성을 강조함

- 환경부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도시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집 가까이에서 자연생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 학습 체험, 휴식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한 자연생태공간. 아이(이용주체) + 뜰(자연공간) + 락(이용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음

● 국외 사례

- 미국 시애틀의 공동체텃밭(Community garden): 공동체텃밭이라는 용어는 ‘개인, 가족, 학교 등의 집단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활용가능한 일정구역의 토지’로 정의됨. 자가소비를 위한 자발적 경작지에서 시작하여 휴식과 여가의 장소를 만드는 장소 만들기(place making), 경관 구성으로 진화되며 개인과 지역에 심리적 효과를 주고 도시의 생명력을 키우는 것이 주요한 특징임 (Jeffrey H 외, 2009).
- 영국의 놀라운 녹색 먹거리 길(the incredible edible green route): 연령, 수입, 문화와 상관없이 “먹었으면 참여 하세요” 라는 좌우명으로 영국 토드모든(Todmorden)시 지역자원봉사자들이 경찰서, 기차역 등 공공 공간은 물론 길거리와 화단, 화분 등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재배하였고 이로 인해 도시 전체가 『벌에 친숙한 지역』, 『꽃가루 이야기가 있는 곳』, 『마켓』, 『카페와 서점』 등 먹을거리와 관련된 생활방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교에서도 이를 활용한 놀라운 먹거리 수업이 진행되었음
- 일본 세타가야 모험놀이터(playpark): “아이들이 진짜 흥미를 갖는 것은 태풍에 쓰러진 나무와 쓰고 버린 싱크대”로 ‘모험’을 놀이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며 2010년 지역 내 어린이·청소년 활동 장소로 주목 받고 있는 266개의 모험놀이터 혹은 플레이파크 모험놀이터 조성. 모험놀이터의 이념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놀다”(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02

충남형 어린이 인성학습원, 자연놀이뜰 조성방안

1. 필요성

- 충청남도 인성학습원의 고유 브랜드 강화
 -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인성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6년부터 공주시에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개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충청남도 성장 동력으로서 어린이 교육과 보육
 - 충남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조사 결과, 교육 부문이 최하위로 나타났으며 발전장애 요인에 교육서비스-인력개발 수준 미흡이 2위를 차지함. 충남의 발전을 위한 교육수준의 제고와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충청남도의 지속가능을 위해 교육 부문 발전이 불가피함
- 인성교육을 위한 가정, 학교, 사회의 협력 모델 구축
 - 인성교육의 핵심은 자기발견과 이해이며 이를 위해 인성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국가·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구조로의 인성교육 틀 개편으로 장기적인 비전 및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정책 추진 필요

2. 비전 및 목표

- 비전
 - 어린이들이 일상적인 자연체험을 통해 친구들과 다양한 방식의 놀이를 선택 해보고 텃밭을 가꾸는 노동을 통해 발견과 수확의 기쁨을 느끼면서 자신의 욕망과 잠재성을 펼쳐나가는 장

● 목표

- ‘자연-보육-배움-공동체’를 묶어 현대와 미래세대의 좋은 삶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통합적인 구현이 가능한 공간과 시설, 운영체계의 모델을 제시함

3. 구성요소별 조성 방안

● 내용 측면

- 자연체험: 다양한 장소(숲, 개울, 텃밭, 풀밭 등)에서 다양한 시기(사계절, 밤과 낮 등)에 오감을 통해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
- 자연놀이: 아이들이 선택하고 조작할 수 있는 활동, 따로 또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에서의 활동, 체험한 것을 창작하고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
- 자연가꿈: 오랜 시간에 걸쳐 변화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존재를 걱정하고 돌보는 윤리적 태도를 기르도록 구성

● 시설 측면

-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거주지와의 접근성, 연령별 접근 방법 및 교통수단, 흥예공원 문화시설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면서 독자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인 ‘아트빌리지’를 최적지로 선정함
- 프로그램과 연계될 때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도 중요한 교육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자연과 어울리는 친환경적 조성을 제안하고 ‘운영할 수 없다면 짓지 말라는 원칙’에 따라 시설의 운영관리 부담을 최소화해야 함

〈표 1〉 시설배치 구상

구분	중심기능	건축	조경(실외)
자연체험존	체험·학습 관리·운영	체험관: 교실, 사무실, 회의실, 수장고, 어린이전용 극장 등	체험뜰: 야외 교실, 피크닉 쉼터(어린이단체), 숲 탐방로, 메인주차장 등
자연가꿈존	체험·학습 전시·관람	① 창작관: 요리교실 겸 식당, 목공실, 예술실, 전시 및 쉼터 ② 가꿈관: 실내식물원, 원예용품점, 수확물보관실, 농기구전시실, 창고 등	창작가꿈뜰: 주머니(포켓) 교실, 맛있는 정원, 모두의 정원, 재활용 정원, 마법 정원 등
자연놀이존	여가·위락 편의·휴식 상업·판매	놀이관: 카페 및 서비스공간, 농부마켓, 나눔장터, 실내놀이터, 도서관, 쉼터 등	놀이뜰: 영아용 놀이터, 자연놀이터, 모험놀이터, 에너지놀이터, 물놀이터, 쉼놀이터

- 대상 측면

- 자연놀이들 주 이용 대상은 어린이인성학습원 설치근거인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조례」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단체와 인근 지역 가정보육시설, 주말 이용 가족으로 설정하였음
- 잠재적 방문객 및 이용객으로는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과 자연놀이들을 벤치마킹하고 양성과정 교육을 받을 생태어린이교육 전문가를 설정하였음

- 운영관리 측면

-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인성학습원의 교육에 있어 지도자의 관심사와 역량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요소임. 개원 이전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선발함으로써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간 세부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프로그램 구상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설 및 조경에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정합성을 높이며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아이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함. 아이들은 언어적 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대목에서 만들기, 그리기 등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한 고리역할을 함
- ‘운영할 수 없다면 짓지 말라’는 원칙을 강조하여 자연놀이들의 조성 이전부터 구체적인 운영과 관리방안, 그리고 이를 운영할 사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

- 네트워크 측면

- 5개 권역별 인성학습원 조성으로 권역별 자연놀이들의 기능이 균형감 있게 상호 연계되고 다른 기능을 추동하게 하는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
- 장기적인 비전하에 교육과 보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전 생애 과정과 연계되는 교육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지역차원에서의 정책과 교육정책의 긴밀한 공조체제 구축

4. 테마별 조성 방안

- 자연체험존

- 자연체험존은 체험과 학습,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사계절을 비롯한 낮과 밤 등 시기와 시간별로 체험할 수 있는 자연소재, 생물 종, 생물의 흔적이나 서식처를 아이들이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 조성하여야 함

- 자연가꿈존

- 자연가꿈존은 체험과 학습, 전시와 관람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씨앗을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연속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함

- 자연놀이존

- 자연놀이존은 여가와 위락, 편의와 휴식, 상업적 기능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아이들 스스로의 선택과 조작활동이 가능한 놀이시설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시설로 계획되어야 함. 놀이 시설은 영아용 기어다니는 놀이터, 흙·나무·언덕의 자연놀이터, 안전한 위험을 제공하는 모험 놀이터, 태양·바람·힘의 에너지 원리를 이해하는 에너지놀이터로 구성하고 다목적 광장과 바닥 분수를 활용한 물 놀이터를 둠

5. 타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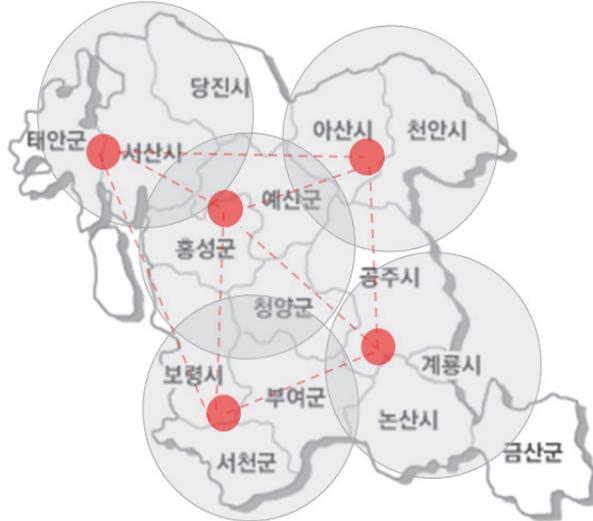
- 본 사업은 충남형 어린이 인성학습원 모델 ‘자연놀이뜰’을 조성하는 것으로 부지 면적은 13,223m², 건축 연면적은 3,909m². 공간은 크게 자연체험존, 자연놀이존, 자연가꿈존으로 나뉘며, 총사업비는 약 213.5억 원이 산출됨
- 내포신도시 자연놀이뜰의 수요 추정 값은 최소 64,031명으로 충남 서북부 지역에 어린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체험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조성되었을 때 많은 부모와 아이 들의 방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업연관표에 의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약 151억 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277명의 취업유발 효과, 21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03

어린이 인성학습원 추진 방향과 전략

1. 기본 방향

- 5가지 테마의 통합적 접근과 네트워킹
 - 지역사회 인성교육 시행을 위한 어린이인성학습원 자연놀이들 모델은 자연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 놀이, 가꿈이라는 테마를 강조하고 건강·안전 및 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접근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장임
 - 충남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 내포에 만들어지는 자연놀이들이 거점이 되어 기존에 운영 중인 공주 충청남도 어린이 인성학습원을 포함한 권역별 총 5개 지역에 자연놀이들을 조성



[그림 1] 5개의 자연놀이들(안)

-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협력
 - 내포신도시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홍성과 예산 주민들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철학과 지향점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연대를 갖출 필요가 있음

2. 추진 전략

- 지도자와 프로그램 중심의 구성과 운영
 - 자연놀이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체험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는 그곳에 전문가 몇 명이 어떤 능력과 소양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려 있음
- 양적 지표와 질적 지표를 병행하는 평가지표 개발, 적용
 - 교육인원과 같은 양적 지표만 한정하여 평가하지 말고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 교육, 국제 교류 등 다양한 질적 지표 등을 통해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도입해야 함
- 프로그램 중심의 시설 구성을 위한 추진 절차 개선
 - 최소 수십억에서 최대 수백억의 비용이 드는 체험 시설을 조성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간 조성 및 시설 계획에 앞선 프로그램 구상과 운영방안 수립임
 - 교육과 체험 전문가가 조성과정에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마스터플래너(MP)와 같은 제도를 도입·적용해야 하고 프로그램 기본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설계용역 과업내용서를 작성해야 함
- 참여적 운영을 위한 운영규정 작성
 - 자연놀이들 모델은 고립·폐쇄적이지 않으며 지역의 농부나 과수원 운영자 등 농작물 재배에 경험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의 참여, 광덕산환경교육센터나 내포생태교육연구소와 같은 전문가들의 참여, 더불어 개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규모 있는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필요함
- 자연놀이들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
 - 자연놀이들 체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자료를 축적함과 동시에 단기적·중장기적 효과의 모니터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해야 함

04 정책 제언

- 어린이들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도록 하는 것, 충분한 배움과 자기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적 규범을 물려주는 것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임
- 자연체험은 특별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충청남도에 자연놀이뜰이 5개 운영된다면 도내 어린이들은 1년에 1~2번 기회를 가질 수 있음
- 이번에 만들어지는 자연놀이뜰이 촉매가 되어 더 많은 도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과 배움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모든 시군의 마을, 학교(유치원과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공원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자연놀이뜰이 조성되길 기대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용추정, 수요예측 및 편익산정, 경제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인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음. 따라서 타당성 평가 과정은 프로그램 기본계획 후에 다시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
- 최근 순천의 기적의 놀이터를 포함,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놀이 및 체험 공간 조성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일부 시설이나 공간은 이미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용자 만족도 등 운영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결과를 확보하여 이후 자연놀이뜰의 조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

041-850-8815, keep@kongju.ac.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6 전략과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충남형 인성학습원 조성 방안”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 권영임, 2009, 유아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방안 연구, 생태유아교육, 8(2): 211-230.
- 김아연, 2008, 서울특별시 상상어린이공원, 월간 CONCEPT, (111), 132-141
- 서울연구원, 2015,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서울정책아카이브
- 아마노 히데아키, 2016, 우리는 왜 모험놀이터를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북매거진 나비
- 오용준, 윤갑식, 2016,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8(1), 105-122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014, 한국 아동의 놀 권리 현주소와 대안
- 이병석, 2013, 인지·정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유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 57, 249-270.
- 이재영, 2014, 한국 환경교육의 흐름1 -체험의 시대-, 공주대학교 출판부
- 장상욱, 2013,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의 중요성, 창의와 인성이 만나는 숲교육, 충청남도어린이인성학습원
- 차성현, 2012, 인성교육 개념의 재구조화, 한국교육개발원.
- 충청남도, 2016, 제3차 충남보육발전 5개년 계획(2016-2020년)
- 충청남도유아교육진흥원, 2015, 체험교육프로그램 안내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현실과 대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환경부, 2014, 생태놀이터 “아이프락”유형별 조성모델 가이드북
- 희망제작소, 2016,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 가치는 안전한 놀이터와 지속가능한 삶, 희망이슈, 8
- Engdahl, Ingrid (2010) Children's voice about the State of the Ear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D, OMEP
- Jeffrey H, Julie J, Laura L., 2009, Greening Cities Growing Communities Learning from Seattle's urban community gardens, 역 이강호, 2013, 시애틀의 도시농업 이야기, 공동체와 텃밭, 그리고 지속가능 도시, 도서출판 조경
- Sobotova, J and J. Dzuberove (2014) Equity for Sustainability, All the children of the world.
- UNESCO(2012)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od Practices in Early Childhood, UNESCO.